

창세기

개요

『창세기』는 『토라(Torah תּוֹרָה)』 즉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첫 번째 책이다.

모세오경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言約關係)를 기록한 가장 먼저 씌여진 실제적인 율법(律法)은 『레위기』이다. 히브리 성경의 『레위기』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 『그가 성별하셨다』이다. 즉 『레위기』의 주제(主題)는 『거룩』이다.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율법(律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곧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어졌다. 즉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레위기』의 율법을 지켜야 거룩해질 수 있었다. 『레위기』의 율(律法)법을 지키면 복(福), 지키지 않으면 저주(詛呪)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율법(律法)은 땅에서 잘되는 법 곧 축복(祝福)의 책이기도 하다. 불신자(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흔히 『레위기』적으로 전도하게 된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그 광야에서』이다. 즉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율법 훈련일지(訓練日誌)라고 할 수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노정(路程)에서의 적(敵)과의 투쟁사(鬪爭史)/전투사(戰鬪史)가 곧 『민수기』의 내용이다.

- * 불가시적인 적(敵) - 광야에서의 적과의 투쟁 - 죄, 정욕, 불순종
- * 가시적인 적(敵) - 모압 등 이스라엘의 적(敵)과의 투쟁

『신명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니라』이다. 『신명기』는 율법(律法)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하여 확인한 책이다. 『신명기』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誡命)이 다시 설명됨과 동시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계명(誡命)이 추가로 주어진다.

*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고별설교(告別說教)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설교 (신 1:1 - 4:43) 회고(回顧)
둘째 설교 (신 4:44 - 28:68) 율법 설명 - 『기억하라』
셋째 설교 (신 29장 이후) 모압 평지에서 추가한 내용

『기억하라』(신 5:15, 7:18-19, 8:2,18, 9:7, 11:2, 15:15, 16:3,12, 24:9,18,22, 25:17, 30:1, 32:7)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라』이다. 즉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라는 뜻이다.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구분된 책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連結)된 책이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출 19:1)의 『나올 때』라는 말을 근거로 70인 역(LXX) 번역자들이 붙인 이름으로 추정(推定)된다.

(출 19:1, 개역)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삼월(三月)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曠野)에 이르니라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동시에 『출애굽기』는 언약(言約)의 역사(歷史) 즉 어떻게 『레위기』를 기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이다.

『창세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태초에』이다. 『창세기』는 언약(言約)의 주인(主人)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책이다.

그러므로 『모세오경(Torah)』은 성경 전체의 기초(基礎)라고 할 수 있다. 오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서』는 언약백성(言約百姓)인 이스라엘이 언약 곧 율법(律法)을 지켰는가 안지켰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시가서』는 언약(言約)을 지키고 은혜(恩惠)받은 사람들의 저술이다.

『선지서/예언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나온 책이다.

언약(言約)을 지키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言約)에 따라 자동적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언약백성(言約百姓)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대로 자동적으로 저주(詛呪)를 내리시지 않고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警告)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이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이다. 선지서(先知書)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矜恤)이다.

신약의 『복음서』는 구약의 모든 언약(言約)이 그 초점(焦點)을 맞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成肉身)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주의 십자가 구원을 기술(記述)한 책이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역사 즉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서신서』는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쓰여진 구원의 편지들이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마지막 초점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성경의 모든 기록을 마무리 하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세기의 저자: 모세 - 내적증거(內的證據)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출 24: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출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민 33:2)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신 31:9)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신 31:22) 그러므로 모세가 그 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신 31: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신 31:25)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 31:26)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대하 25:4)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대하 34:14)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하 35:12)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막 12: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눅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 1: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고후 3: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계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 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창세기의 구성(構成)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제1-11장까지이다. 창조(創造)에 대한 기사(記事)로부터,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바벨 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제12-50장까지이다. 믿음의 조상(祖上) 『아브라함』 을 부르신 사건으로 시작하여 『아브라함 - 이삭 - 야곱 - 요셉』 에 이르는 네 명의 족장(族長)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창세기』 에는 『아브라함과 롯(승리/실패)』, 『이삭과 이스마엘(승리/실패)』, 『야곱과 에서(승리/실패)』, 『요셉과 유다(승리/승리)』 가 서로 대조(對照), 비교되어 기록되어 있다.

실패(失敗)한 것처럼 보였던 부끄러운 『유다』 를 『요셉』 과 함께 궁극적(窮極的)으로 승리(勝利)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공훈(창 37:26-27, 창 38장, 마 1:3)!

이것이 구원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오경의 신학(Theology of Pentateuch)

- 하나님 나라(씨 - 땅 - 주권)의 전개과정(展開過程)
- 언약(Berith בְּרִית):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는 구체적인 수단
 - * 언약(言約)을 지켜나가는 수단이 언약법(言約法) 곧 율법(律法)이다.

구약의 언약(言約)

- 족장언약(창세기 15, 17장): 하나님 나라의 씨와 땅을 준비하는 예비적언약(豫備的言約)

- 시내산 언약(출애굽기 19-24장): 하나님 나라의 씨의 완성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
- 세겜(모압)언약(신명기): 하나님 나라 땅의 완성

따라서 『창세기』를 단순한 족장(族長)들의 이야기 곧 족장들의 개인(個人) 차원의 믿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즉 언약(Berith)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신앙공동체(信仰共同體)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오경을 읽어야 한다.

언약신학의 관점으로 성경 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전개과정(展開過程), 그 언약(言約)이 어떻게 성취(成就)되는가를 살펴보고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이며 언약신앙(言約信仰)이다.

언약(言約)이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두 인격 당사자간의 공적관계(公的關係)를 법률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예) 고대 왕(王)들의 조약(條約), 입양(入養), 결혼(結婚)

신약의 언약(言約) - 『새 언약』 곧 십자가의 언약(言約)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 7:22)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 8: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 8:7)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 8: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 8: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 8: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 8: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앞이라

(히 8: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 8: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 9: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 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 9: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고되었다. (렘 31:31-34) 과 (겔 36:25-28)에서 예고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다.

(렘 31: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렘 31: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31: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겔 36:24)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겔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겔 36: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겔 36: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